



###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37 밥은 그리움

## 멸치조림이 시체조림으로 보일 때

인도의 티베트 삼보사찰에서 온 남카 스님과 웬덴 스님, 진바 스님이 달라이 라마의 생신상을 차리기 위해 생신 전날 의기투합했다. 우선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본 스님들은 저녁식사로 잇은 채 밥당 열 주방에 모여 분주하다. 웬덴 스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과일을 씻는 사이, 남카 스님과 진바 스님은 과일을 씻을 그릇들과 행주를 챙긴다.

달라이라마의 생신 축원기도에 참여하고자 멀리 부산에서 온 노보살님 한분은 그리한 스님들의 분주함을 한 치 떨어지지 바라만 볼 뿐이다. 스님들의 큰 스승인 달라이 라마의 생신상 이니만큼 제자들이 손수 차릴 것을 배려한 속 깊은 뜻에서란다.

웬덴·진바 스님이 과일을 준비하는 동안, 무언가를 찾아 동분서주하던 남카 스님의 손에는 투명 접착테이프와 이쑤시게가 들려있다.

“이걸로 과일, 주사 맞아야 해요. 과일 높게 쌓아도 넘어지지 않게 이쑤시게로 연결하고 테이프 붙여줘야 해요. 이렇게 하는 거 한국 보살님들이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그런데 티베트에서는 큰 그릇에 담으니까 이렇게 쌓는 거 안 해요. 그래서 한국이 더 예뻐요.”

과일의 층수가 올라갈수록 불안하고 위태롭게만 보이자, 이윽고 노 보살님의 주전공인 듯한 잔소리가 터졌다. 한편 접착테이프를 길게 늘어뜨리고 대기 중이던 남카 스님은 성급한 마음에 과일 둘레를 테이프로 칭칭 돌려 붙인다는 것이 거의 도배를 하고 말았다.

“아이, 너무 더러워. 지저분하게 이게 뭐야. 못 살아 못 살아...”

진바 스님이 어딘지 낯익은 잔소리를 패러디해 쏟아놓자 웃음보가 터지고, 다시 보수공사에 들어가 어렵사리 과일 쌓기가 완성됐다.

“티베트에서는 기도상 차릴 때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는 음식 만들어 올리는데, 우리는 대신

‘세리’ 올려요. 세리는 보릿가루나 미숫가루에 버터랑 꿀 넣고 우유나 요구르트, 설탕 넣고 반죽해 동그랗게 빚는 거예요.”

세리를 빚는 동안, 이야기는 무릇 음식과 살생에 대한 주제로 이어졌다. 추운 기후와 농사가 불가능한 환경 때문에 절에서도 육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티베트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인 불교의 불살생 정신과 모순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소위 ‘짜지기’를 좋아하는 내 머리 구조가 그러한 생각이 미칠 때, 남카 스님이 마침 그와 관련된 신신당부를 한다.

“옛날에 티베트에서는 날씨가 너무 추워 꿀이 없었으니까 고기 안 먹으면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강물에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도 생선은 먹지 않았어요. 돼지 한 마리 살생하면 여러 사람 먹을 수 있지만, 생선은 한 사람이 여러 마리 먹으니 얼마나 많이 살생해야 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생해야 된다면 최소한 줄여야 해요. 그래서 생선 먹는 거 줄여야 해요. 달라이 라마께서도 옛날에는 고기 안 먹었지만, 요즘은 먹

을 게 많아졌으니 살생 줄이기 위해 옛날 식성은 바뀌어야한다고 자주 말씀하세요.” 기억도 가물가물한 어린 시절에 가족들과 둘러앉아 만두를 빚듯 티베트 스님들과 세리를 빚고 돌아온 날 밤, 배가 출출해 냉장고를 뒤져 보니 며칠 전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남겨 쟁겨온 찬이 마침 있었다. 큰 멸치를 반으로 갈라 고추장에 얼큰하게 조림한 멸치조림이다. 이니 반가울조나. 전날 남은 밥을 물에 푹푹 말아먹을 요량으로 잔 뚜껑을 여니, 거기에는 멸치들의 준비한 시체 토막들로 고추장에 버무려져 있었다.

티베트 스님들과의 인연으로 찾은 ‘정체성의 상실’로 아마도 나는 당분간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야 될 듯싶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진바·남카·웬덴 스님이 함께 빚은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티베트의 전통음식 '세리'

## 벽산 거사의 고무신코 만행화 이야기 ⑤

## 아버지와 망월사 인연으로 만든 만행화

어느 날 문득 ‘왜 나는 하필 스님 신발을 만들게 됐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이치도 인연법에 의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말이지. 그 인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벤자민 버튼처럼 시간을 거꾸로 돌리며 그 인연의 고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 아버지가 제게 불교와 인연을 맺어주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25년 전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중풍으로 왼쪽 전신이 마비되어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15년간 뇌졸중 투병생활은 말이 15년이지 가족과 부인 모두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의 권유로 남한산성 망월사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망월사 주변의 맑은 공기는 아버지와 제가 함께 부처님의 품에 기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실 5대 목자인 아버지는 전통적으로 그렇듯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평범한 유교신자였습니다. 불교와는 특별한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차츰 아버지는 불법에 귀의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달력에 그려져 있는 관세음보살의 그림을 보며 무릎을 꿇은 채로 합장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를 불러 ‘내가 죽거든 묘를 쓰지 말고 깨끗하게 화장을 해서 강물에 뿌려 달라’ 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날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고향인 선산에 묻힐 것을 말씀하시던 아버

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 가족과 친지 모두에게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불구의 몸으로 고향 선산에 잠드느니 불교의식에 따라 화장돼 마음 편히 길을 떠나고 싶다’ 고 말씀을 하시고 얼마 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유언대로 화장을 했습니다. 하늘의 인연이었을까요? 마침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에 망월사의 극락보전이 완공됐고 아버지는 그곳에 가장 처음으로 모셔졌습니다. 49재를 마치고 남은 유골은 강에 뿌려졌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낚시를 하며 수많은 살생을 한 그곳에 아버지의 유골이 뿌려지는 것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며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난 후부터 저는 살생의 죄를 참회하며 망월사를 더욱 자주 찾아가고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삶의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덕분에 망월사를 알게 됐고, 스님을 만나 만행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으로 불자와 스님들의 편안한 곁을 이어줄 만행화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서원을 세워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신과 심신건강 身健康 43 뇌신경전달물질과 성격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 상대방이 날 힘들게 할 때 대처법 1

1. 엄청나게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을 상대할 때

엄청나게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약하거나 콤플렉스가 있거나 미성숙 또는 자신의 결점이나 약점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이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존심이나 명예를 가장 중시한다. 진정한 자존심과 명예가 아닌 사실 쓸데없는 자존심과 명예이지만 말이다. 따라서 이들과 상대해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존심과 명예를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예를 들어 내가 입는 옷마다 핀잔을 주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넌 어째 입는 옷마다 매일 그 모양이니? 어울리지도 않게... 너무 촌스럽다.”

이럴 경우 우리는 흔히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났기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하나?”, 혹은 “너나 잘 입으시지!”하고 핀잔을 주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렇게 대꾸하기보다는 “너러면 어떻게 코디할 것 같니? 너는 센스가 뛰어나니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줘봐”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습성을 역이용해서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는 기법이다.

잘난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당연히

히 과시욕이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살려주고 부탁을 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개 열심히 도와주려한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 오히려 나중에는 그 친구가 당신에게 어울리는 약세사리나 옷을 사서 코디해줄 수도 있다. 당신의 “어쩔 년 그렇게 멋진 안목을 갖고 있니? 사람이 달라 보인다”라는 칭찬을 듣고 우쭐해지고 싶어서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닌가. 그는 잘난 척하고 싶은 욕구를 긍정적으로 해소했고, 당신은 덤으로 선물까지 받았으니...!

2. 무례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사실 잘난 척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보다 더 곤혹스러운 경우는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다.

잘난척하는 사람은 그의 자존심만 안 건드리고 우쭐함만 살려주면 그만이다. 그런데 무례한 인간들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태는 생각 안하고 나오는 대로 지껄이고 하고 싶은대로 무식하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니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 오랜만에 길에서 우연히 만난 선배가 보자마자 내게 반말로 인사를 건넨다. 사실 자주 보고 아주 친숙한 사이가 아니

누구와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각자 나름의 입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입장인데 길에서 마구 큰소리와 반말로 이야기하는 것도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다.

하기야 반말로 인사까지는 좋다 치자. 가관인 건 이어지는 안부는 이런 안부인사가 아니라 무례함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 염장 굵기 페레이드처럼 느껴진다.

“아직도 시집 안갔나? 왜 안갔는데? 나이는 점점 드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순간 머리는 멍해지고, 속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라 표정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내가 시집 안가고 이렇게 사는데 보태준거 있냐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일단 물어오르는 속을 진정하고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준다.

“제가 꼭 그 질문에 답해야 되나요?” 혹은 “왜 그렇게 궁금하시죠?”라고 간단히 되묻는다.

이는 더 이상 무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울그락 불그락 하며 무례한 사람과 똑같이 굴거나 또는 난처해서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무례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재미있어하고 즐기면서 계속 더더욱 무식하고 무례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02576-7575)

### 현대불교 현불샵 생활도자기 특별기획전

전화주문 ☎ 02)2004-8215~6

도자기의 본고장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의 생활화를 목표로 순수자연원료로 제작된 도자명품 생활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의 품질로 완성된 생활 명품입니다. 도자기 접시와 찻잔(머그잔, 커피잔), 다완, 퇴수기, 화병, 화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자기는 불자들의 생활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 퇴수기는 흔히 물버림 사발이라고도 하며, 버리개라고도 합니다. 다완과 잔을 데운 물을 버리거나 다완을 얹어 찌꺼기를 버리는 그릇입니다. 입구가 넓으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단도라지꽃합접시 대20,000원/중10,000원/소5,000원	 등근3꽃접시3종세트 판매가 35,000원	 4발접시 판매가 45,000원	 검정사각원꽃접시 판매가 45,000원
 청자수반퇴수기 판매가 50,000원	 분청퇴수기 판매가 80,000원	 이도덤벙퇴수기 판매가 40,000원	 분청동그리화병 대 40,000원 / 소 20,000원
 분청하얀꽃화병 대 60,000원 / 소 40,000원	 벗씨화병 대 100,000원 / 소 80,000원	 보라꽃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카키색원물고기찻잔 판매가 8,000원
 카키색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백자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하트모양커피잔 판매가 15,000원	 연꽃백자커피잔 판매가 18,000원

현대불교 @장리  
www.HyunbulShop.com  
이외 다양한 상품은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만나보세요.